광주 어린이 장염 '비상'

〈로타바이러스〉

설사·구토 등 호소…환자 20% 급증

최근 고열과 구토, 심한 설사 증세를 보이는 로타바이러스 어린이 장염 환자가 늘고 있다.

29일 광주지역 소아과 병·의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감기·설사·구토 등 로타바이러스 장염 증상을 호소하는 어린이 환자가 평소보다 20%가량 늘었다.

남구 양림동 기독병원 소아과의 경우 2주 전부터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병원을 찾은 소아환자가 외래환자 중 20~30%, 입원환자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조대병원 소아과도 이달 들어 장염 환자가 늘기 시작해 전체 외래환자 중 10%가량이 설사·구토 등 로타바이러스 장염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중 탈수증세가 심각한 6명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서구 금호동 우리아동소아청소년병원도 1주 전부터는 하루 1명 꼴이던 장염 환자가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다. 남구 주월동 미래아동병원도 로타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장염환자가 20%가량 늘었다.

감기 증세에 구토와 설사 증세를 동반하는 로타바이러스 소아장염의 경우 12월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해 초봄인 2~3월에 감염이 가장 활발해져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로타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 호흡기 등을 통해 침투해 감염되며 특히 생후 6~24개월의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김경심 기독병원 소아과 전문의는 "구토·설사 등 분비물과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손가락 사이와 손톱까지 비누로 깨끗이 씻고, 특히 배변 후에는 꼭 손을 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로타바이러스(rotavirus)=감기처럼 보이지만 곧 심한 설사를 동반하며, 고열과 구토가 1~3일간 지속되다 탈수 증상을 보인다. 접촉을 통해 쉽게 전염되며, 공기를 통해서도 확산될 수 있다.

미대는 실기시험중 조선대 미술대학의 2008학년도 수시 2-2 시험에 지원한 미술학부 지망생들이 29일 실기시험을 보고 있다. 조선대 수시 2-2 면접·실기에 응시한 학생은 4천47명(경쟁률 2대 1)으로 합격자는 다음달 14일 발표한다. 이날 같이 실시된 전남대 수시 2학기 시험엔 6천965명(〃 2.69대 1)이 면접을 치렀으며,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16일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능 성적 내달 7일 발표

예정보다 5일 앞당겨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당초 예정보다 5일 빠른 다음달 7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수능 등급제 전환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시험 성적을 예정보다 앞당겨 12월7일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성적은 원래 다음달 12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올해부터 수능 성적이 원점수 없이 등급으로만 표기되는데다 성적발표일 전까지 수험생들이 자신의 정확한 등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학전략을 짜는데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능성적 제공방식의 변경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수능 직후부터 사설기관의 부정확한 가채점 결과 남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성적을 최대한 빨리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등급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은 여전히 과거 점수제 방식에 집착해 수능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며 "만약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면 각계 구성원들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심사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사고' 폭발 아닌 발열 가능성

지난 28일 충북 청원에서 일어난 휴대전화 사고는 배터리 폭발이 아니라 발열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전기연구원 전지연구그룹 엄승욱 선임연구원은 "보통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폭발하면 본체에 붙어 있을 수 없고 사방으로 파편이 흩어진다"며 "사고 휴대전화의 사진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배터리에서 높은 열이 나 녹아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오랜 시간 충전시키거나 배터리의 +, - 단자가 금속 물질에 닿을 경우 순간적으로 전류가 급격하게 올라가 열이 발생하고 배터리 내부의 음극과 양극을 가로막는 고분자 물질이 수축된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안의 전해액이 열로 인해 가스로 바뀌면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해 폭발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외부로부터 배터리가 충격을 받아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는 막이 찢어져 절연 상태가 깨져도 전류가 급격하게 올라가 열이 발생해 폭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휴대전화 사고 2건

화재·낙뢰…1명 사망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의 경우 공기와 수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빗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튬'은 가벼운 금속 물질로 공기나 수분과 접촉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순간적으로 150도가 넘는 고열이 발생, 휴대전화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밀폐된 용기나 공간에서 휴대전화가 폭발할 경우 파편이 신체에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다. 또 '리튬'이 화학반응을 일으킬 때 몸에 해로운 기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열'(熱)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도 경고한다.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사용할 때 배터리 내부에 열이 생기는 데 이때 온도가 높은 곳에 두어 외부의 열까지 결합하면 전지를 싸고 있는 케이스가 녹거나 형태의 변화가 생겨 휴대전화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사고는 2건으로 1명이 숨졌다.

지난 2006년 3월엔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직장인 김모(여·48·광주시 북구 문흥동)씨의 KTFT 휴대전화가 배터리 과열로 불났다.

앞서 2004년 8월에는 장흥군 관산읍 '갯장어 축제'를 구경하던 박모(당시 46)씨가 빗속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낙뢰에 맞아 숨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경찰청 '소촌동 시대' 내달 10일부터 업무

48년간 광주·전남지역 치안을 맡아온 광주·전남경찰의 '광산동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음달 10일부터 '소촌동 시대'가 열리게 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청은 지난 2005년 8월 착공한 신청사 건설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3일 치안상황실·홍보실 등을 시작으로 1주일 동안 현 청사 인력과 장비를 새 청사로 옮길 예정이다.

새 청사는 총 3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산구 소촌동 170번지에 대지면적 3만9천961㎡, 건물 전체면적 1만9천698㎡ 규모로 지하 1층·지상 9층의 본관동과 지상 2층의 민원동으로 신축됐다. 또 실내사격장 등 치안시설도 마련됐으며, 직원목욕탕·이발소·유아보육시설 등 직원 복지시설도 마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관 살해 사형' 軍형법 위헌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대법원이 'GP 총기난사' 사건(8명 사망 4명 부상)을 일으킨 김동민 일병의 신청을 받아들여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53조 1항은 위헌"이라고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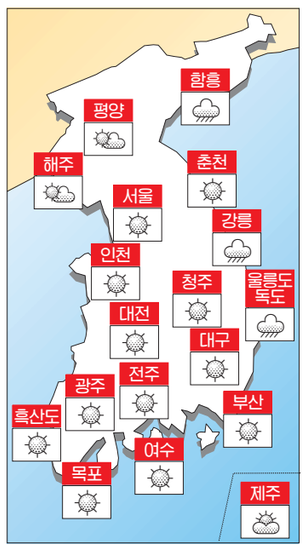
헌재는 "해당조항은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법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포근한 겨울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11월 30일 (음 10월 21일) ◇전국날씨

광 주	맑음	-1~9℃
목 포	맑음	1~9℃
여 수	맑음	4~10℃
완 도	맑음	2~9℃
구 례	맑음	-4~10℃
해 남	맑음	-2~10℃
장 흥	맑음	-2~10℃
고 흥	맑음	0~11℃
순 천	맑음	-4~10℃
영 광	맑음	0~9℃
진 도	맑음	3~10℃
전 주	맑음	-2~8℃
남 원	맑음	-5~8℃
흑산도	구름 조금	6~7℃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2.5m

목 포 밀물 05:57 18:49 썰물 11:06 --:--
여 수 밀물 00:30 13:20 썰물 06:32 19:43

▲해뜸 07:21 ▲해짐 17:21 ▲달뜸 23:17 ▲달짐 12:1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날 씨						
최저/최고	-2/11	2/12	3/10	-1/11	0/12	1/12

간암 투병 '5월의 누이' 박경순씨 숨져

특별법 제정 앞장 등 민주화 운동 헌신

간암으로 투병〈본보 10월11일자 7면〉 중이던 '5월의 누이' 박경순〈사진〉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장이 29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향년 44세.

고인(故人)은 지난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사수대원이던 오빠 병규(당시 20세·동국대 1년)씨가 총을 맞아 숨진 후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바쳤다. 지난 1985년 조선대학교 회계학과에 입학한 고인은 '오월 청년 동지회'에 가입, 청년회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5·18 행방불명자신고센터 위원장(1988년),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처장(1992년), 5·18 학살자처벌을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1998년),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2005년) 등을 맡아 헌신해 왔다. 특히 청년회장 역임 당시 '5·18 증언록'을 발간했고,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 운동에도 앞장섰다.

고인은 지난 8월21일 간암 판정을 받은 뒤 담양군 고서면 집에서 남편 허연식(44·전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씨와 함께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투병생활을 해 왔으며, 틈틈이 5·18 민주묘지에 들르는 등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고인은 숨지기 직전 남편에게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먼저 떠나게 돼 아쉽다. 지인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힘든 투병 생활을 참아낼 수 있었다"며 "광주항쟁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옳은 역사'로 전해지도록 힘써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장지는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 대상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 당시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기타 희생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유족으로는 남편과 1남 2녀가 있다. 빈소는 광주 그린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2일 오전 9시. 문의 062-250-4410.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